

飼料業界

金正仁

(신촌사료 이사)

1. 1978년을 보내며

1978년을 보내는 지금 무엇보다도 사료 업계에 있어서는 한해가 너무 빠르고 발전속도가 놀라운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민소득이 1,000\$을 넘어서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의 축산물 수요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1년에 소비량이 거의 2배로 뛰어오르는 등 기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1978년 금년은 무슨 큰 일이 일어났었다기 보다는 작년에 있었던 감사의 쇼크를 벗어나고 신년에 대비하는 “잉여기간”이었다고 보고 싶다.

금년도 사료업계에서 특기할 만한 일들을 필자 나름대로 대강 추려보면, 265만톤의 배합사료 생산예상 수입사료의 관세 인하(2월), 축산진흥회의 출범(4월), 육

수수가격 폭등 및 육계가격폭락으로 인한 육계용사료 생산제한, 도입육수수의 안정 기준가격변경(5월), 배합사료 가격조정(6월), 대두박의 대량수입(5만톤), 피혁분사용 및 그로 인한 공해문제(11월, 동아일보), 배합사료 가격인상요청, 사료공장시설근대화시작 등으로 볼 수 있겠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매년 30%~40%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국내사료자원의 증산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입의 준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 추세란 점이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유례없는 배합사료의 생산량을 기록했던 1977년보다 1978년 9월까지 37%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생산추세를 볼때 금년도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약 265만톤의 신기록을 또 수립할 것 같으며 1979년도에는 약 330만톤의

(표) 배합사료의 생산실적(78년:77년)

구분	육추	산란	육계	소계	양돈	낙농	비육	기타	합계
1977 1월-9월	158,864	505,351	180,963	845,178	264,106	198,199	58,504	30,589	1,396,576
1978 1월-9월	227,248	636,300	341,096	1,204,644	318,288	227,646	167,036	2,124	1,919,738
대비 78/77	% 143	126	188	143	120	114	285	7	137

배합사료공급이 필요하리라고 한다.

축산의 양적규모 팽창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고, 원하는 바이지만 앞으로의 배합사료업계의 사황은 적기에 좋은 가격으로 사료원료를 수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금년 2월 대두박과 옥골분 및 어분의 관세를 종전 20-30%에서 5%로 채종박을 30%에서 20%로 인하 조정하여 양축가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완화해 준 결과가 되었다.

두번째로 축산진흥회의 출범이다. 금년 4월에 장덕진 농수산부장관이 "양축농가의 소득보장과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물생산과 유통을 전담할 기구"라는 치사와 함께 정식으로 문을 열은 축산진흥회는 그 목적이 축산물의 기반조성과 생산에서부터 축산물과 사료의 수급조절 및 가격의 안정, 유통시설지원과 운영들의 업무를 맡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사료 가격안정기금의 관리 및 옥수수의 수입창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명년부터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육계사료의 파동을 들수 있겠다. 금년 4월 옥수수 가격은 당시의 기준가

격인 톤당 130\$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육계의 가격은 kg당 400원선으로 폭락하는 등 육계업자들이 도산위기에 몰려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수산부에서는 육계사료의 생산을 증가 시키지 않도록 사료공장에 지시하는 한편 초생추의 계통 증명을 제출하는 양계업자에게만 육계사료를 판매케 하는 등 한때 큰 과문을 업계에 던졌다. 육계용 초생추의 생산을 사전 조절할 수 있는 능동적인 채널이 매우 아쉬웠던 때였다.

넷째 도입옥수수의 안정기준 가격이 국제옥수수가격이 앙등됨에 따라 1978년 5월 19일 종전 130弗 (C&F)에서 135弗로 인상조정했다. 또한 6월에는 배합사료의 가격을 조정하여 양계용사료의 경우

0.09% (사료협회) ~ 0.75% (농협)가 인하되었다. 이는 대두박등의 값싼 단백질 사료 등을 사용 다시 원가계산을 하여 조정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인하폭이 좁아 양축업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으나 사료공장 입장에서는 옥수수 안정기금 인상으로 약 1.5% 이상의 인하 효과를 주게 되었다.

다섯째 대두박 등의 대량수입을 들수 있겠다. 금년에는 대두박의 품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량수입케 될 것

이며(약 5만톤) 동방유량등 국내 대두박 생산업자들이 공급하는 대두박과 함께 금년도의 사료생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어분등도 저렴한 가격으로 약 6천톤이 도입되어 사료품질 유지에 공헌했다고 본다.

여섯번째로 11월에 동아일보 사회면에서 큰 문제점을 일으켰던 배합사료내의 피혁분 사용문제이다. 현행 사료 관리법에 의하면 등록된 피혁분은 3% 이내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일부 업자들이 미등록 피혁분을 사용하며 최근 배합사료공장의 채산성이 악화되자, 사용량이 격증하고 있는것이 원인이다. 등록된 피혁분의 사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별문제는 아니겠으나 자칫 국민의 여론이 축산물을 공해 식품으로 배합사료 공장들 악덕업자로 오해할까봐 두렵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배합사료가격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품질경쟁의욕이 잘 생기지 않게 되므로 이런 값싼 사료원료의 수요가 많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겠다.

일곱번째로 국내배합사료공장의 대형화가 시작된 점을 들 수 있겠다. 배합사료 수요량의 격증으로 정부에서는 사료공장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공장은 일산능력 200톤이상 신설공장은 300톤이상으로 배합사료공장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일부를 축산진흥회의 사료안정기금에서 장기 대출하는 등 적극적인 장려책을 펴서 이미 상당수의 사료공장이 착공하였고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다. 금년도에는 대전의 삼성사료가 준공되었고, 그밖에 대한제당, 제일제당, 삼양축산, 풍진화학 농협군산공장등의 신설공장이 착공되었고 기존공장으로서서는 서부사료, 금

성물산, 신촌사료등 여러회사가 건축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모두가 반자동 이상이고, 상당량의 정밀기계를 수입하였고 일부 사료공장은 자동제어장치에서 펀치카드시스템에서 일층 발전한 컴퓨터시스템의 현대적 사료공장을 건설중이라고 한다. 우수하고 정밀한 기계시설은 좋은 품질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되므로 신년도에는 양질의 배합사료가 보다 풍부히 공급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배합사료가격의 인상문제인 바 업계에서는 강피류의 부족,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인한 제조관리비의 앙등 등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관제기관에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조정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행정당국 측에서도 현재 관급강피류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사료공장들이 이를 많이 사용하여 사료효율저하를 일으킬 염려가 있어 16%정도 가격을 인상하여 배합사료 가격과 함께 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2. 1979년의 사료업계는 ?

신년도의 한국사료업계는 매우 큰 변화를 일으킬 한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 신년도의 전망에 대하여 우선 사료수급 및 사료의 가격, 국내사료 공업계의 동향, 사료의 품질관리 및 기타 행정조치에 대하여 간단히 전망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로 1979년도의 배합사료의 공급은 적기에소요량을 수입할 수 있겠느냐는 양적인 문제와 가격이 안정화되겠는가 하는 두가지 문제점으로 좌우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배합시 원료는 거의 80%가량이 직간접 수입형태이며 대부분이 미국에서 수입되므로 금년도의 미국의 작황을 알아보면 어느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

1978년도의 미국농산물 수확에상량은
옥수수 68억부셀(전년비 7%증)
대 두 17억부셀(전년비 3%감)
소 맥 17.9억부셀(전년비 2%감)
유실(油實) 5천 4백 3 십만톤) (전년과
동일)

이라고 하는데 우선 양적인 공급면에서 큰
차질이 없을 것 같다.

행정당국에서는 신년도에는 배합사료의
생산량을 330만톤으로 예상하고 옥수수등
의 도입곡류를 안정한 가격에 조기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미국의 달러화
인플레이 때문에 미국농산물을 수입하려는나
라가 늘고 있고 미국농민들이 적자생산을
호소하고 있기때문에 풍작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의 가격은 서서히 인상 되리라고 보
는 견해가 많다.

또한 신년도에는 1978년도의 대두박 평
균배합비율 8.13%에서 1979년에는 9.21%
로 상향조정하여 대두박으로서 단백질 구
성을 높이고, 강피류에 있어서는 생산량
을 42만톤으로 삼고 금년도의 평균배합비
율 18%에서 15.45%로 하향조정될 것으
로, 또한 가격은 16%정도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곡류는 60.4%에서 62.95%
로 상향조정된다고 한다. 양계용사료에 있
어서는 강피류의 사용율이 한층 더 하향
조정되지 않을 수 없어 옥수수등 도입곡
류와 대두박등의 비교적 저렴한 단백질원
의 사용량이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현재의 배합사료가격은 강피류가격인상,
제반생산비의 앙등으로 얼마간 상향 조정
될 것이므로 그 폭에 따라서는 품질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둘째로 국내의 대형사료공장들이 준공

생산개시하게 될 것이므로 보다더 풍부한
사료가 양축가에게 공급될 것이다. 원료
의 상황에 따라 다소 풀리기는 하겠지만
대규모의 현대화시설공장의 출현은 양적
으로 풍부한 사료공급을 의미하므로 일단
양계업계에서는 고무적인 사실로 환영하
여야 하겠다. 단지 필자의 희망으로는 우
수한 시설을 보유한 공장에서 우수한 기
술자를 많이 채용하고 그동안 소홀한 감
이 있었던 배합사료의 품질경쟁에도 불을
붙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랄뿐이
다.

아울러 행정당국에서 지시한 바도 있었
지만 펠렛트사료나 곡류의 증기압편시설
등 효율이 높은 사료의 제조시설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추가 제조
비 요인인정)이 이루어져 양추업자에게도
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고 싶다.

셋째로 각 사료회사는 품질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서 양축가에게 서비스 함으로
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
다. 사실 금년도 까지는 안일한 사고방식
에 의하여 품질경쟁없는 판매경쟁의 양상
으로만 치닫고 있었으나 새해에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으로는 건전한 기업의 육
성이 어려우리라고 예견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새해인 1979년도는 국내 배
합사료업계로 볼 때는 하나의 새장(章)으
로 접어드는 해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수
준으로 가공되기 시작할 신설배합사료 공
장과 기존공장간의 조화가 품질경쟁이란
함수로 조화되어져 국내 양계업계를 비롯
한 한국축산업계에 큰 활력소가 되어 주
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